

중학생의 또래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김진희*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and C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Jin-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the degree of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to affect it. The study were investigated 338 middle school students aged from 13 to 15 years ol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victimization and affecting variables it; expression of anger, social skills, and aggressiv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was explained by the control expression of anger, cooperation, sympathy, and enmit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c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was explained by the control expression of anger, sympathy, and enmity.

In conclusion, sympathy of social skill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ed the 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and the c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Social skill will serve as the basic element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s of those who are victimization.

Key Words: 분노표현(Expression of Anger),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공격성(Aggressiveness), 직접 피공격(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간접 피공격(C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1) 교신저자: Kim, Jin-hee, Woryeong-Dong 449, Masan 631-701, Republic of Korea
Tel: 055-249-2352 Fax: 055-249-2345 E-mail: witch65@kyungnam.ac.kr
2)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 또래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청소년은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갈등이나 무시, 또는 공격 등을 경험하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를 실행할 기회를 갖지 못 한다.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또래 괴롭힘 현상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또래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피공격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피공격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취약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불행함이나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도현심, 2003; 최보가·임지영, 1999). 이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는 피공격 청소년은 또래집단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족,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보고한다(Parkhurst & Asher, 1992). 또한 정서적으로 위축된 학교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Olweus, 1998; Schwartz 등, 1993).

이와 같이 학교 폭력 문제는 피공격 청소년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학생에 대한 연구와 별도로 피공격 청소년의 피해 원인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의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고찰해 보면, 청소년의 성, 학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보고되고 있다(차희정,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피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청소년의 피공격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공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밝혀진 분노표현(최은숙, 1999; 김석진, 1999), 사

회적 기술(이규미, 1998; 구분용, 1997; 민유리, 1999) 그리고 공격성 변인(한영주, 1999; 이춘아, 2001; 차희정, 2002)이 또래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피공격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한 변인들은 이미 피공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피공격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태도, 학업 성적(최은숙, 1999; 차희정, 2002; 이춘하, 2001) 등의 변인을 함께 연구하였고, 다음으로는 피해 성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가해 성향 변수(민유리, 1999; 차희정, 2002)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공격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선정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연구(차희정, 2002; 최은숙, 1999; 민유리, 1999)는 조사대상자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피공격 경험이 없는 사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공격 청소년의 개인과 가정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으로 한정하고,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을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보아 공격성을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피공격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례만을 최종 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피공격 성향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공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공격의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이춘아, 2001, 차희정, 2002)을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간접 피공격과 직접 피공격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변인으로 피공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피공격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공격성을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으로 구분하여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연구변인들의 점수 경향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하위 요인이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공격성

피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Olweus(1996)가 학교에서의 공격행동에는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목표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시작되었다. Olweus(1991)는 피공격성을 한사람 혹은 집단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언어적·신체적·정서적으로 공격당하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피공격성을 직접적인 피공격과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거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간접적 피공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Crick과 Bigbee(1998)는 피공격성을 직접적 피공격성과 관계적 피공격성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직접적 피공격성이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공격과 욕을 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적 피공격성이란 생일파티나 학급활동에서 제외당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친구가 없도록 고립 당하게 하는 등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해 심리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피공격 피해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과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학생들이다(김용태 등, 1997; 박경숙 등, 1998, 김창대, 1999). 피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등의 은밀한 방법과 집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김용태·박한샘, 1997). 최은숙(1999)은 피공격의 하위 유형을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피해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특성 분노 그리고 부정적 자기 개념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피공격 연구에서 피공격성은 또래지명법이나 피공격성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또래지명법을 사용한 연구는 피공격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조사대상자 전체를 포함한 연구보다 피공격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영주(1999)는 824명을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피해자 집단이 나르시시즘, 사회기술, 공격성의 평균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신유림(2000)은 또래지명법과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당하는 아동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피공격 척도를 사용한 연구(차희정, 2002; 최은숙, 1999; 민유리; 1999)에서는 조사대상자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피공격 점수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피공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차희정(2002)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피공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최은숙(1999)은 가정환경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에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여 피공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 피공격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일부분을 분석(한영주, 1999)하거나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이지훈, 2006)도 있다.

2.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본 연구에서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과 피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의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선정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각 변수의 개념과 피공격성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1) 분노표현

분노는 신체적 불만과 고통, 좌절, 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며, 미미한 짜증으로부터 극단적인 격노까지의 비교적 강한 강도를 지니는, 불쾌한 내적 경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영인, 1994). 분노의 표현은 분노의 외적표출, 분노의 내적 억제, 분노의 통제로 구분된다(Spielberger, 1988). 분노의 외적 표출은 화

난 감정이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혹은 극단적 모욕 등과 같은 언어적 공격 행동이나 신체적 공격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분노의 내적 억제는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화난 감정은 경험되지만 이를 억누르는 태도이다. 분노통제는 다시 냉정을 유지하고 성질을 통제하여 분노의 표출을 막는 것과 한 사람의 내부에 있는 분노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빨리 진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주로 분노억제 방식을 취하며(김석진, 1999), 최은숙(1999)은 분노억제는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분노통제는 피해집단이 가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지훈(2006)의 연구에서도 피공격 위협집단이 안전집단보다 분노를 표현할 때 표출과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려 억압하면, 우울해지고 무력해진다.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우울, 무력감(이규미, 1998)은 그들이 따돌림에 의해 높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나 주로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사회적 기술

공감능력의 미발달(김창대, 1999; 한영주, 1999)은 피공격 관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유리(1999)는 초등학교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장성은 또래 괴롭힘과 부적절한 상관이 있으므로 자기 주장성이 강한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Olweus(1993)는 자기 주장성이 낮은 남아가 또래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Schwartz와 그의 동료들은(1993)은 놀이 집단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해 본 결과, 낮은 자기 주장성이 또래에 의한 학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구본용(1997)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의 낮은 자기 주장성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따돌림 상담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기술의 부족을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규미(1998)도 타인에 대한 경계와 의심, 왜곡된 지각으로 인한 부적

절한 행동, 적절한 사회기술의 부족이 따돌림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애·아재규·권혜수의 연구(1998)에서도 상대 감정에 무심하고 상대를 개의치 않는 행동 그리고 지나친 노출 등을 따돌림 이유로 보고해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또래간에 부적절한 사회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친구관계에 대한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친구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비효과적이라고 보고한다(Coie & Dodge, 1983; Newcomb & Bukowski, 1993). 특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또래집단에 어울리고자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종종 경직되고 고정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상황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동양상을 보여준다(Ramsey, 1991).

3) 공격성

최근에는 공격을 많이 당하는 청소년도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공격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Schwartz와 그의 동료들은(1993)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 가운데 일부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Boulton과 Smith(1994)도 또래 지명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 피해 아동의 26%가 ‘먼저 싸움을 건다’에 그리고 43%가 ‘방해한다’는 문항에 잘 맞다고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공격적 특성이 괴롭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희정(2002)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직접적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높을수록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이춘아, 2001)에서는 직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피공격성 모두에서 직접적 공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주(1999)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있어서는 가해자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 집단, 평범집단 순으로 나타나 피공격 집단의 공격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또래피롭힘과 공격성 점수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한 연구(신유림, 2000)도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5개 지역에 위치한 10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이며, 각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완전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남학생

453명과 여학생 517명의 설문지 970부로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 점수를 더한 피공격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평균(M=22.09, SD=7.86) 보다 점수가 높은 338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피공격 점수 평균은 30.70(SD=7.15)으로 전체 사례의 평균보다 8.61 높았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된 설문지 중 피공격성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례만 분석한 것은 또래 공격 피해자를 밝혀내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차희정, 2002; 최은숙, 1999; 민유리, 1999)는 피공격 경험이 없는 사례가 포함된 조사대상자 전체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부 추출 하여 연구(한영주, 1999)하거나 군집분석을 통해 피공격의 위험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련 변수에 차이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변수	급간	N(%)
본인	성 별	남	223(67.0)
		여	110(33.0)
	연 령	13세	125(37.5)
		14세	107(32.1)
		15세	101(30.3)
가족	수 입	200 만원 미만	120(35.5)
		200~300 만원	96(28.4)
		300 만원 이상	122(36.1)
	부학력	중졸이하	40(12.0)
		고졸	179(53.8)
		전문대졸이상	114(34.2)
	모학력	중졸이하	40(12.1)
		고졸	213(64.4)
		전문대졸이상	78(23.6)
	부직업	전문·관리, 사무직	84(25.6)
		생산·기술직	86(26.2)
		영업·서비스직	39(11.9)
		자영업	73(22.3)
		기타	46(14.0)
	모직업	전업주부	136(41.7)
직업 유		190(58.3)	

있는가를 검증(이지훈, 2006)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한영주(1999)의 연구에서는 824명을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사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각 30명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또래지명법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피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군집분석으로 피공격 집단을 구분한 연구(이지훈, 2006)는 이전 연구들 보다 피공격 점수가 높아 피해성향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보다 사례수가 241명으로 적다. 또한 피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수가 본 연구보다 많음에도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높지 않고, 위험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관련 변인의 차이를 주로 검증하여 피공격 청소년의 행동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중에서 피공격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례만을 최종 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피공격 성향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7.0%로 여학생보다 많고, 13세가 37.5%, 14세 32.1%, 15세 30.3%이다. 부모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53.8%)과 어머니의 학력(64.4%)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기술·생산직(26.2%)과 전문·관리, 사무직(25.6%)의 비율이 높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8.3%이다.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35.5%)과 300만원 이상(36.1%)의 비율이 높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피공격성과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 원 척도의 요인구조를 유지하여 분석하였고, 최종 질문지 문항과 하위 요인별 타당도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1) 피공격성 척도

피공격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춘아(2001)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내용은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공격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직접 피공격성’과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관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간접 피공격성’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 ‘그런 적이 있다’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공격 피해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하위척도	설문지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Alpha)
피공격성	직접 피공격	I -1,3,5,7,9,11,13	7	.818
	간접 피공격	I -2,4,6,8,10,12,14	7	.846
분노표현	표출	II-14,22,2,23,7,12,9,19	8	.861
	억제	II-15,20,24,4,11,18,8,21	8	.805
	통제	II-13,16,17,3,10,6,5,1	8	.764
사회적 기술	협동성	III-6,10,11,13,14,15,17,22,27,31,34,35	12	.889
	공감성	III-2,3,5,8,9,12,21,24,25,29,37,39	12	.896
	주장성	III-1,4,20,23,28,38,	6	.817
공격성	신체 공격	IV-1,2,3,4,5,6,7,8,9	9	.740
	언어 공격	IV-10,11,12,13,14	5	.749
	적의성	IV-15,16,17,18,19,20,21,22	8	.810

2) 분노표현 척도

분노표현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짜증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Spielberg(1988)의 STAXI(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 표준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언어적 공격 행동이나 신체적 공격 행동으로 표현되는 ‘분노표출’, 화난 감정은 경험하지만 이를 억누르는 ‘분노억제’ 그리고 냉정을 유지하고 성질을 통제하여 분노 표출을 막는 ‘분노통제’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평가하였다.

3) 사회적 기술

Gresham과 Elliot(1990)에 의해 개발된 Social Skills Rating Scale(SSRS)을 한영주(1999)가 변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고, 하위척도는 협동성, 공감성, 주장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성’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타협하고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는 능력을 측정하며, ‘공감성’ 요인은 타인의 갈등 상황에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장성’ 요인은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공격성 척도

공격성에 대한 검사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숙희(1999)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공격성 질문지는 폭력의도, 다툼, 협박 등을 물어보는 ‘신체공격’요인, 의견충돌, 따지기 등으로 구성된 ‘언어공격’요인, 그리고 남에 대한 의심, 질투, 피해의식 등을 물어보는 ‘적의성’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분석방법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공격성과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 2)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피공격성,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Reliability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4.0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독립변인으로 정의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변수와 종속변수인 피공격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노표현 하위요인에서는 억제 요인의 평균값이 다른 요인보다 높았고, 사회적 기술 변인에서는 공감성, 협동성 요인 순위로 평균값이 높았으며 공격성 변인에서는 언어 공격과 적의성 요인의 평균이 신체공격보다 높다.

분노표현의 억제 요인 점수가 다른 요인의 점수보다 높은 것은 공격 피해자들이 주로 분노 억제 방식을 취한다는 연구 결과(최은숙, 1999; Williams & Jenkins, 1986)와 일치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변인의 주장성 요인 점수가 다른 요인의 점수보다 낮은 결과도 또래 공격 피해자들이 낮은 주장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손진희 등, 1998; 구본용, 1997)를 지지하였다.

<표 3>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

변 수	하 위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SD)	
독립 변인	분노표현	표출	1.00	3.63	2.11(.521)
		억제	1.00	3.75	2.31(.510)
		통제	1.00	3.88	2.15(.493)
	사회적 기술	협동성	1.58	3.67	3.15(.545)
		공감성	1.58	4.00	3.51(.570)
		주장성	1.00	4.00	2.68(.788)
	공격성	신체공격	1.00	3.78	2.21(.434)
		언어공격	1.00	4.00	2.47(.514)
		적의성	1.00	3.75	2.41(.506)
종속변인	피공격	직접 피공격	1.00	4.00	2.23(.622)
		간접 피공격	1.29	4.00	2.14(.565)

직접 피공격의 평균이 간접 피공격 점수보다 높고,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t=2.772, p<.001$)는 유의하였다. 피공격 하위 요인의 평균값은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측정된 점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능한 피공격 경험이 많은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거된 설문지 970부 중 피공격의 합이 평균 이상인 사례만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차회정(2002)의 연구에서는 직접 피공격 평균이 1.52이고, 간접 피공격 평균은 1.02로 조사되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직접 피공격 1.72, 간접 피공격 1.25였다

(이춘아,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전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보다 피공격 경험이 높은 집단으로 피공격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이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에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회귀계

<표 4>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표출	억제	통제	협동성	공감성	주장성	신체공격	언어공격	적의성	직접 피공격	간접 피공격
표출	1										
억제	.066	1									
통제	.363***	.335***	1								
협동성	-.205***	.287***	-.066	1							
공감성	-.035	.258***	-.069	.444***	1						
주장성	.114*	.119*	-.168**	.307***	.478***	1					
신체공격	.418***	-.007	.016	-.048	.037	.250***	1				
언어공격	.327***	.152***	.045	.175**	.210***	.083	.314***	1			
적의성	.311***	.005	.346***	-.140*	-.035	.002	.344***	.298***	1		
직접피공격	.120*	.035	.131*	.030	-.150*	.006	.141	-.038	.001	1	
간접피공격	.147*	.042	.260**	-.068	-.158*	.026	.146*	-.028	.227***	.480***	1

* $p<.05$, ** $p<.01$, *** $p<.001$

수를 비교하고, 피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와 각 변수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이 상관관계수가 모두 .60이하로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분노표현(표출, 억제, 통제), 사회적 기술(협동성, 공감성, 주장성), 공격성(신체공격, 언어공격, 적의성) 변수이며 각 변수의 하위 요인별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를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살펴봄으로써 피공격성을 유발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1)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이 직접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이 직접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표 5), 분노표현 변인만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4.4%(P<.001)인 반면, 사회적 기술 변인을 투입하면 설명력은 13.7%(P<.001)로 그리고 공격성 변인을 함께 투입하면 설명력은 15.1%(P<.001)로 증가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당하

는 직접 피공격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짜증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피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분노표현 변인에서는 통제(β=.082, P<.05)가 사회적 기술의 하위 요인에서는 협동성(β=.094, P<.05)과 공감성(β=-.340, P<.001) 그리고 공격성 변인에서는 적의성(β=.125, P<.001)이 직접 피공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에서 공감 변인만 직접 피공격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공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 피공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피공격 피해자들이 타인의 요구나 관심 및 감정 상태에 공감하는 능력이 낮고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구분영, 1997)와 일치한다. 또한 적의성이 직접 피공격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경계와 의심,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 피공격이 발생한다는 이규미(199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분노표현에서 통제와 사회적 기술의 협동성 변인이 직접 피공격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피공격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접 피공격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타협하

<표 5>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이 직접 피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 피공격성					
		β	t	β	t	β	t
분노 표현	표출	.265	.649	.069	1.892	.054	1.249
	억제	-.048	-1.402	.036	.965	.055	1.429
	통제	.212	5.931***	.139	3.771***	.082	2.052*
사회적 기술	협동성			.064	1.670	.094	2.371*
	공감성			-.361	-9.102***	-.340	-8.085***
	주장성			.031	.832	.013	.343
공격성	신체공격					.016	.397
	언어공격					-.061	-1.536
	적의성					.125	3.095**
상수		7.889		14.075		12.018	
F값		14.541***		21.971***		15.951***	
R ²		.044		.137		.15.1	

*p<.05, **p<.01, ***p<.001

는 협동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노 통제는 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최은숙(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협동성 점수가 직접 피공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피공격자는 겁이 많고 자기주장을 못하며, 내향적인 특성(Rigby, 1996)을 갖고 있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는 특성(Schwartz et al, 1993)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이 간접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이 간접 피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노표현 변인만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8%($P<.001$)로 억제($\beta = -.087, P<.01$) 점수가 감소하고, 통제($\beta=.302, P<.001$)가 증가할수록 간접 피공격 점수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주로 분노 억제 방식을 취한다는 연구 결과(김석진, 1999; Williams & Jenkins, 1986)와 상반되지만 억제 반응이 가해학생들의 공격 심리를 더 자극하여 따돌림을 유발하는 조건(이규미, 1998)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간접 피공격을 피하기 위해 억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 변인을 함께 투입하면 설명력은 17%($P<.001$)로 증가하고, 통제($\beta=.253, P<.001$)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감성($\beta=-.321, P<.001$)의 점수가 낮을수록 간접 피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 피공격성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분노 통제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최은숙, 1999)와 일치한다. 그리고 공감성이 낮을수록 간접 피공격이 높아지는 결과는 공감 능력의 미발달이 집단따돌림 관련 요인이라는 결과(민유리, 1999)를 지지하는 것이다.

분노표현, 자기통제, 공격성의 하위 요인을 모두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1%($P<.001$)로 증가하며 통제($\beta=.159, P<.001$)와 적의성($\beta=.247, P<.001$) 점수는 정적으로 그리고 공감성($\beta = -.309, P<.001$) 점수는 부적적으로 간접 피공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친구를 칭찬하는 등의 정서적 능력을 나타내는 공감성이 따돌림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이 피공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한영주, 1999)와 일치한다. 적의성 요인은 직접 피공격에서와 같이 간접 피공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피공격 경험자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불안감, 낮은 자존감, 사회적 상호작용 회피(Heaven, 1994; Suderman, et al., 1996)를 나타내는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의심, 질투, 피해의식 등을 나타내는 적의성이 간접 피

<표 6>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이 간접 피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접 피공격성					
		β	t	β	t	β	t
분노 표현	표출	.030	.890	.059	1.643	.050	1.705
	억제	-.087	-2.613**	.000	-.005	.018	.480
	통제	.302	8.680***	.253	7.052***	.159	4.148***
사회적 기술	협동성			.016	.418	.046	1.210
	공감성			-.321	-8.238***	-.309	-7.638***
	주장성			.044	1.212	.036	.952
공격성	신체공격					.046	-1.178
	언어공격					-.041	1.073
	적의성					.247	6.374***
상수		6.925		12.313		10.088	
F값		30.774***		28.863***		22.78***	
R ²		.086		.172		.212	

* $p<.05$ ** $p<.01$ *** $p<.001$

공격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간접 피공격 경험이 적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피공격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피공격성을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으로 구분하여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피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여 피공격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공격을 유발하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공격성을 포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피공격 청소년의 행동 특성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은 피공격에 대한 설명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어지는 연구에서 또래 피공격성 원인과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 준다. 또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 변인들은 직접 피공격보다 간접 피공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으므로 피공격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격성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변수로 연구함으로써 또래 피공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분노표현에서 통제요인이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분노 통제는 피공격 피해자의 전형적인 분노표현 방식이고, 통제가 약해지면 가해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피해 집단이 가해 집단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피공격을 경험하면, 분노와 억울함 감정을 느끼고, 가해자에 대해 복수심과 증오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은 지속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술에서 공감성 요인은 피공격성의 두 가지 유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이 요구된다. 타인의 요구나 관심 및 감정 상태에 공감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또래 공격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 높다. 따라서 공감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또래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성은 간접 피공격에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직접 피공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으므로 수업과 학교 활동에서 또래 집단에서 협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또래 피공격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공격성 변인의 적의성은 공감성 다음으로 간접 피공격과 직접 피공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나 언어적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피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결과이다. 공격적인 피해자는 자신이 유발시킨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과장된 분노와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또래로부터 더욱 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격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속되는 피공격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 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분용(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학

- 의 관장.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7-36.
- 김석진(1999). **초등학교 집단 따돌림 실태와 관련 연구**.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박한샘(1997). **비행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창대(1999).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본 집단따돌림 현상. **청소년 상담연구**, 7, 7-25.
- 도현심(2003). 또래 괴롭힘 피해자의 특성에 기초한 증재 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1.
- 박경숙·손희권·송혜경(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애·이재규·권해수(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화의 광장.
- 민유리(2000). **아동의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희·홍지영·양재혁(1998).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신유림(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51-58.
- 이규미(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
- 이숙희(1999). **주장 혼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2006). **중학생의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구·한덕용·이장호(1997). 한국한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차희정(2002). **청소년의 피공격성 및 관련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은숙(1999).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분석**.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주(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tsche, G. M. & Knoff, H. M.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23(2), 165-174.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 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ie, J. D., & Dodge, K. A. (1983). Multiple source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Gresham, F. M. (1988). Social Skill: Conceptual and applied aspects of assessment, training, and social validation. *Handbook of Behavior Therapy in Education*, 20, 523-546.
- Heaven, P. C. L. (1994). *Contemporary adolescence: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Spring Publishing Company.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NJ: Lawrence Erlbaum.
- _____ (1994). *Bullying at school: Long-term outcomes for the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 R. Huesmann(Eds). NY: Plenum Press.
- _____ (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 _____ (199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Ramsey, P. G. (1991). *Making friend in school: Promotion of pe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 Rigby, Ken (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Jassica Kingsley Publishers.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Schwartz, P., & Dodge, K. A.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s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Williams, D. A., & Jenkins, J. D. (1986). *Anger, assertiveness and the Type-A Behavior Patter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피공격성을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으로 구분하여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5개 지역에 위치한 10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피공격성의 점수가 평균 이상인 3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피공격성과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하였다.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은 직접 피공격의 15.1%를 설명하고, 분노표현 변인에서는 통제가 사회적 기술의 하위 요인에서는 협동성과 공감성 그리고 공격성 변인에서는 적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공격성은 간접 피공격의 21%를 설명하고, 통제와 적의성 점수는 정적으로 그리고 공감 점수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6일